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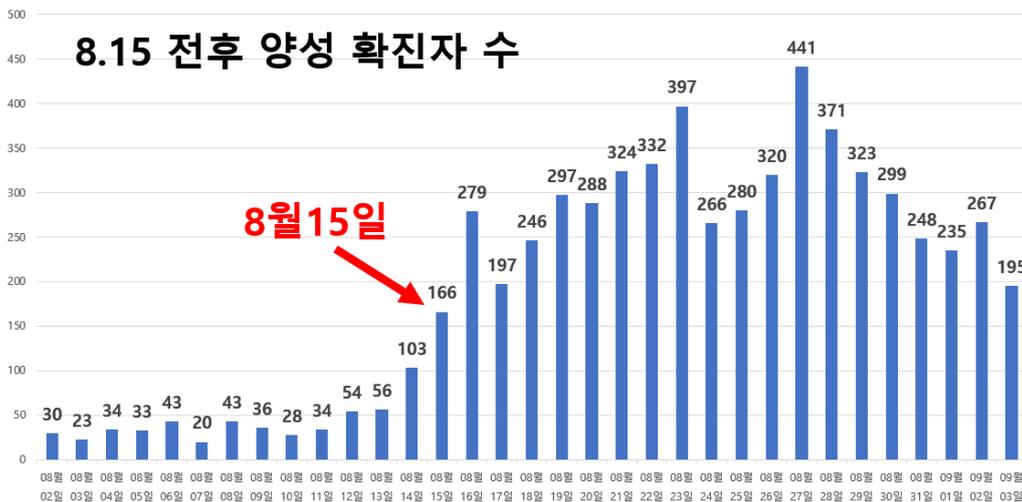
# 김정호의 경제읽기

No. 2020-31

## 코로나 확산의 8·15 집회 책임론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8·15 집회를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이라고 몰아 왔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15일 이후 확진자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8·15 집회 때문이 아니고 8월 초에 해운대로 제주도로 바캉스 가서 감염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8·15 집회가 원인이라면 8월 21일 이후에 양성 확진률이 높아졌어야 하는데 양성 확진률은 16일 최고점에 도달했고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 늘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먼저 양성 확진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5일 전에 100명 미만이던 것이 14일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3일까지는 50명 수준이던 확진자가 14일에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 이렇게 급격히 증가해서 27일에는 441명까지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8월 25일 코로나의 폭발이 8·15 집회 때문이라며 집회를 허가해 준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방역 조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8·15 집회를 악의 근원인 것처럼 치부해 버렸군요.

표면적으로 확진자 숫자만 보면 정총리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5일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잠복기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한 후 증식해서 증세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낮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다룬 의학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2020년 5월에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잠복기가 평균 5.1일이고 11.5일 안에 감염자의 97.5%가 증상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sup>1</sup> 평균 5일이고 최대 12일이라는 말이죠. 8월에 <Science Advances>라는 학술지에 또 다른 논문이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잠복기가 평균 7.76일이고 14.9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95%라고 나와 있습니다.<sup>2</sup> 의사가 아닌 저로서는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알 수 없으니 두 논문의 평균인 6일 정도이고 2주 이내에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5~6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검사를 해도 양성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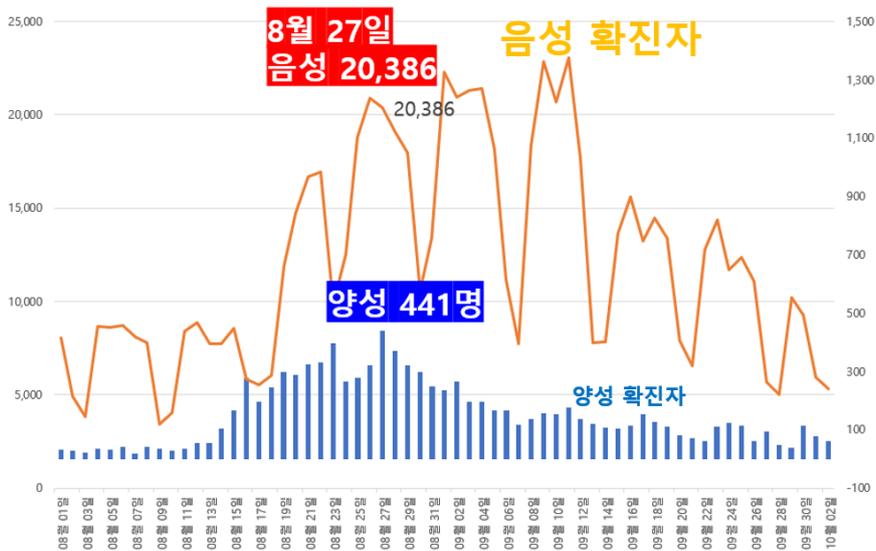
자 그럼 이런 지식을 갖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실제 확진자 숫자를 검토해 볼까요? 확진자 숫자는 8월 14일부터 늘기 시작했지만 잠복기를 생각하면 14일부터 20일까지의 확진자는 8·15 집회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15일에서 잠복기 6일이 지난 8월 21일 이후에는 8·15 집회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요.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에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으니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늘어난 확진자들은 8·15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양성 확진자 숫자만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표면적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확진률을 봐야 합니다. 전체 감염자의 비율이 일정하더라도 검사 인원이 늘어나면 양성 확진자가 늘겠죠. 하지만 음성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 확진자 숫자만 보면 마치 감염자가 늘어난 것처럼 착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성 확진자 숫자를 보면 안 되고 확진률을 봐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sup>1</sup> <https://www.acpjournals.org/doi/10.7326/M20-0504>

<sup>2</sup>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33/eabc1202>



아래의 양성 확진률 그래프를 보시죠. 양성 확진자 숫자를 양성, 음성을 모두 더한 숫자, 즉 총 검사수로 나눠서 나온 비율입니다. 8월 13일 0.7%이던 양성 확진률은 14일에 1.3%로 뛰고 16일에 4.6%가 되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6일 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져서 9월 1일에는 1% 미만이 됩니다. 확진자 숫자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확진자 숫자는 15일 이후 계속 증가해서 27일에 최고가 되는데요. 양성 확진률은 16일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합니다.

### 8.15 전후 양성 확진율 추이



확진자와 확진률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검사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8월 18일까지는 검사자의 숫자(양성+음성)가 8천명 또는 그 이하 수준이었는데 19일부터는 12,000명이 되었고, 가장 많은 확진자 숫자를 기록한 27일에는 검사자 숫자

가 무려 21,000명에 달했습니다. 검사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음성 확진자의 수도 크게 늘었지요. 이 그래프는 음성 확진자의 숫자인데요. 양성자가 441명으로 피크에 달한 27일, 음성 확진자 숫자는 2만명이 넘었습니다. 음성 역시 엄청 많이 나왔지만 양성만 따지기 때문에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려면 단순히 양성 확진자의 인원수만 보면 안되고 전체 검사자 중의 비율을 봐야 합니다.



양성 확진률의 움직임은 8·15 집회로 인해 감염자가 많아졌다는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말해줍니다. 만약 8·15 집회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면 잠복기인 6일이 지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확진률이 급격히 증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확진률은 그와 반대입니다. 16일에 최고점을 찍은 후 급속히 낮아졌고 21, 22일 모두 1.9%로 높지 않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확진률의 급증은 13일부터 시작되어 16일까지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양성 확진자는 8·15 집회 때문일리가 없습니다. 잠복기 5~6일을 감안해 보면 8월 초 감염된 사람들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8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름 휴가, 바캉스 기간이었습니다. 8월 5일 해운대에 50만이 모였지요. 또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21만 3천명이었다고 합니다. 관광이 뭐니까. 여럿이 모여서 먹고 떠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느라고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해운대, 제주도, 동해안 다녀온 사람에게는 검사 받으라는 말을 전혀 안 하니까 확인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 때 해운대, 제주도, 동해안에서 감염된 사람도 아

마 8·15 집회에 참가했거나 사랑제일교회에 다녔으면 그 탓으로 돌려졌을 겁니다. 어쨌든 16일 이후, 양성 확진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보면 8·15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후 2주 동안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검사자의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검사자 숫자를 조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반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사 받으라고 문자 보내고, 질병관리청과 언론을 동원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검사를 더 받게 되죠. 정부의 의도에 따라 검사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의 잠복기와 양성 확진률을 고려했을 때 8·15 집회가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김정호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

\* 이 글은 2020.10.4 <김정호의 경제TV>로 방영된 <8.15 집회 책임론, 거짓 아니면 무식. 잠복기와 양성 확진율 동향에 대한 분석.[k-방역 분석 2]>의 텍스트입니다.

<https://youtu.be/OBBJmDnIT4I>